



나는 누구를 닮아 가야 할 것인가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교육하는 장소와 국가의 중요한 곳에는 훌륭한 사람의 동상이 있다. 이것은 학생이나 국민이 그분을 닮아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중심가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으며 각 학교에도 닮아야 할 대상의 동상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닮아가는 것은 부모며, 같은 혈통이 아닌 입양아들도 양부모와 같이 살면 양부모의 모습을 닮아 간다고 한다. 부부는 일신이란 말도 있는데 부부가 일생을 같이 살다 보면 많이 닮아 간다고 하며, 어떤 부부는 닮아서 오누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닮아 가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적 인적 환경에 닮아 가며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선망하고 바라는 모습의 인간상이 정해졌다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을 닮아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부가 선망하는 위대한 인간상이 배속의 어린 아에게도 꿈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

다니엘 후손이 쓴 '큰 바위 얼굴' 이야기는 61년도 이후 교과서에 실려 40여 년간 학생들이 감명 깊게 읽고 있는데, 글의 주인공 어니스트(Earnest)는 성실하고 소박한 젊은이로 살면서 집 근처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면서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하고 진실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자랐다.

자라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늘 실망을 안겨줬다. 그런데 언젠가 밝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그가 할아버지가 된 후, 선교를 끝내고 평온한 얼굴을 짓자, 석양에 비친 큰 바위 얼굴과 어니스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 자신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했다는 이야기다.

이 글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희망을 지니고 열심히 사는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성공자를 닮아 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닮아야 할 것이 많은데,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먼저 나를 낳아 주신 부모의 장점을 닮아야 하며, 다음은 내가 성공 목표로 하는 위인을 정해,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심신 모습이 위인처럼 되어 간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위인을 찾아 정하고 그 분과의 만남을 통해 닮아 가는 것인데, 만남에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간접 만남은 그분들의 전기전집 독서를 통해 간접으로 만나는 것이다.

발명가의 꿈을 두었다면 에디슨을 만나야 하고 정치에 꿈이 있다면 세종대왕을 만나야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빌 게이츠나 정주영 회장을 만나서 그분의 삶을 닮아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닮고 위인을 닮고 그다음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가까이하고 닮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인 하느님은 내가 닮아야 할 최상의 목표로 삼고 가까이 사는 것이다. 어떻게 닮아 갈 것인가.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항상 가까이 사는 것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그려보면 내가 닮아야 할 것들이 부모 형제 이웃이 있는데, 가까이 있다 해서 닮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닮아야 할 대상을 정하고 접근해야 가까워지고 닮는다.

하느님은 동심원에서 나와 거리가 있지만,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영접하면 나의 모습은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인데, 종교계에서 바라는 것은 종교의 위대한 대상을 믿고 따르며 닮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바라는 닮아야 할 목표인 대상을 정하고, 닮아 가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항상 최상의 목표 대상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관하시는 조물주(造物主) 하느님 임을 알고 하느님을 닮아 가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닮아 가야 할 대상을 어려서부터 정해 그분을 닮아야 하며 그분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야 성공한다.

칼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양성빈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기고



요즘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뉴스 및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그저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겠지 하다가는 자신이 뉴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란 무엇일까? 전세 사기의 종류와 최근 유행하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란 부동산 거래 중 전세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건물을 전세금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 또는 전세금을 받은 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서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거래하는 수법을 말한다.

전세 사기의 수법은 크게 분양가 부풀리기, 이중계약, 불법 건축물, 직거래 사기 등이 있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분양가 부풀리기 사기 수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은 최근 많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으로 신축 빌라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감정하여 부풀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세금 체납이 많은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분양받은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지만,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체납된 세금 액수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도 못 할 수 있다.

보증금보다 세금 체납액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이 전세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체납한 세금 배당순위가 우선된다. 즉 확정일자 이후로 발생한 세금보다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이고, 보증금이 3억, 실제 시세가 3억 원, 세금 체납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인 3억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 세금 체납액 5천만 원이 국세청에 배당이 되고 나머지 2.5억 원만 세입자에게 배당된다. 이러한 상황이면 세입자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받아야 하지만, 쉽게 줄리가 만무하고 소송을 통해 받아 내는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소송 기간 동안 대체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므로 이중 생활고에 빠질 수 있다.

세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해당 집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인터넷이든 꾸미거나, 다른 세입자가 빨리 계약할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세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안전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사기꾼들은 주로 예쁜 인테리어에 현혹되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며, 부동산 계약에 익숙치 않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겨냥한다.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대책안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의 봄, 광주의 봄

김덕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안내원



묘지에서 5·18을 안내하는 나로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2·12에 대해 모르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꼈다.

왜 하필 지금 이 영화일까? 시대가 바뀐 것이다. 내놓고 얘기해도 거리낌 없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올해는 故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5·18묘지를 방문해 참회하기도 했다. 역사는 힘있는 소수에 좌지우지되기도 했지만 모이고 모인 소시민의 작은 힘들에 의해 바뀌기도 했었다. 전자가

하나회의 12·12라던 후자가 80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이고 1987년 6월 항쟁임을 말해 무엇할까! 깨어 있는 소시민의 힘은 크고도 위대했음을 우리 똑똑히 보았다.

영화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부축했지만, 12·12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N차 관람이 많고 관람 후 분노로 증가한 심박수를 체크하는 웰린지까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때의 이슈가 아닌 영화 너머의 현대사를 뒤적여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고

'서울의 봄'이 개봉 14일 만에 500만 관객 동원의 쾌거를 달성했다. 영화를 즐기지 않지만 내 발길도 어느새 영화관으로 향했다. 어떤 끌림에 의해서일까? 사람이 많다. 절찬리 상영 중이란 이를 두고 말함인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 반란이 벌어진 9시간의 이야기. 영화관에서 즐기는 주특기인데 이 영화는 졸음을 허하지 않았다. 영화의 절정은 광화문 광장에서 반란군과 이들을 진압하러 출동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의 대치 장면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둘로 나뉘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은 긴박하면서도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다.

배일에 철저히 가려진 우리가 몰랐던 군복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현대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으니 모름은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에 너무나 큰 사건.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